

여야, 한동훈 ‘첫날’부터 현안 놓고 ‘신경전’

박찬대 “채상병특검법 찬성 행동으로 보여달라” 민주, 국회 새지도부에 ‘5대 요구안’ 수용 촉구 韓 “한동훈·김건희 특검” 추진 막무가내 억지”

여야가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의 첫 입기 첫날인 24일부터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

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민심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며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갑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

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는 경비견처럼 흉포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진짜 권력자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애완견처럼 굴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특검 수용과 수평적당정 관계를 비롯해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 등 (민주당의) 5대 요구안을 한동훈 지도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윤명환복’ (尹命韓服·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복종한다는 뜻) 식의 당정 관계를 거부해야 한다”며 “정책과 비전을 통한 야당과의 ‘잘하기 경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제3차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원칙론적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채상병특검법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한다”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차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할지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차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르면 원내대표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견을 좁히며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 대표는 “다수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국민의힘은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전북 국회의원 10명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민주 “여당 전대서 전북도민 간첩으로 비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출대를 넘어 ‘전북 폄해’에 나선 국민의힘은 180만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 김윤덕·박희승·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운·이원택·이춘석·정동영·한병도 국회의원(기나다 순)은 이날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자는 각 시·도를 호명하는 도중에 전북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간첩’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내뱉었다”며 “이후 다른 진행자는 ‘전북을 따로 해야 하나’라는 망발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에 묻는다. 전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180만 전북도민은 간첩이라는 것인가”라며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철 지난 간첩 타령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망언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점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미래로 가자’는 취임 일성이 헛된 말이 아니라면, 전북도민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계속 전북 죽이기에 나선다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180만 전북도민, 500만 출향도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분당대회’에서 끝내 일베 수준의 망

언이 나왔다”며 “전북도민을 간첩으로 동일시하고 비하했다”고 힐난했다. 장 최고위원은 “호남 간첩은 일베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으로,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의 호응으로 일베식 혐오 발언을 완성한 것”이라며 “제대로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지역주의를 부추긴 멘트에 대한 한동훈 당대표의 단호한 취임 첫 조치를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소셜 미디어에 “박수치지 않은 사람들 간

첩이러니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전당대회에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글을 올렸다.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 각 지역에서 온 당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서 사회를 맡은 김병찬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러든가”라고 말하자 양종아 당선관위원은 “전북도를 따로 해야 하나”고 대꾸했다. 이들은 행사 마무리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 바로 잡는다. 불편하게 했다면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나와 싸우려 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선서문을 전달한 뒤 인사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이 후보자를 다시 불러 귀에 대고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연합뉴스

김양정,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 임명

선임대변인엔 김연옥 前청와대 행정관 발탁

새로운미래는 24일 제5차 책임위원회 열고 수석대변인에 김양정 전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선임대변인에 김연옥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새미래는 또 대변인에 조덕호 전 충남도 정부비서관, 추민규 전 경기도의원, 이영주 전 경기도의원, 홍서운 전 KBS 장애인 앵커를 임명하는 등 대변인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광주 출신인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동신여고와 전남대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섰다



김양정 김연옥
가중도 하차한 바 있다. 김연옥 선임대변인은 광주 송일고와 전남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전남일보에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직을 수행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광주 서구를 후보로 출마한 이력도 갖고 있다. /김진수 기자

“변화없다면 방송4법·채상병특검법 25일 처리”

우 의장 “마주치지 않는 손뼉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이른바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여야 간 대치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

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야권에 방송통신위원회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빚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며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